

# 한국어와 몽골어의 어음대조\*

권 오 선

## 머 리 말

한·몽 두민족은 역사적으로 연계가 밀접하였고 또 언어상에서도 공통성을 많이 엿볼수 있을만큼 밀접하였다. 하여 적잖은이들이 한국어도 몽골어 처럼 알타이어계통에 소속시키고있다. 한몽어의 어음대조는 두민족의 밀접한 연계를 일층강화하고 한국어의 계통소속을 밝힘에 유조하다.

본문은 사적으로 그 친족성을 밝히려는것은 아니고 현대 한몽어의 어음의 공통성과 구별점을 밝히고저 모음, 자음, 어음변화, 음절, 악센트에 걸쳐 두어음 체계를 대조한다.

## 1. 모음

한국어모음은 21개(홀모음 10개, 겹모음 11개)이고 몽골어모음은 37개(홀모음 26개, 겹모음 11개)이다.

### 1. 1. 홀모음

한국어홀모음은 10개(양성 4개 : ㅏ, ㅑ, ㅓ, ㅕ, 음성 6개 : ㅜ, ㅠ, ㅡ, ㅗ, ㅛ, ㅣ)이고 몽골어홀모음은 26개인데 그중 짧은모음이 15개<sup>1</sup>이고 긴모음이 11개이다. 짧은모음 15개는 몽골고유모음 11개(양성 7개 : a, r, ɔ, ɒ, æ, œ, y, 음성 4개 ə, i, o, u)와 외래어전사모음 4개(1, ɿ, y, ê)로 이루어졌고 긴모음 11개는 입말에서만 있는것으로서 고유어 짧은 모음 11개와

\* 본 논문의 표기법 및 띄어쓰기는 필자의 원고 대로임.

<sup>1</sup> 몽골어 홀모음을 보는 견해가 여러가지이다. 즉 14개로(《간명몽골어문법》 싸인얼더니, 내몽골 인민출판사, 1986), 23개로(《몽골어간지》, 도부, 민족출판사, 1983년), 26개로(《몽한사전(蒙漢辭典)》, 내몽골대학, 몽골어문연구실, 내몽골인민출판사, 1976,《현대몽골어문법》, 칭걸타이, 내몽골인민출판사, 1984) 보는 등등. 본문에서는 26개로 보았다.기본모음 8개(원래 기본모음 7개중 중성이었던 i를 음, 양성[i, I]로 갈라 봄)와 앞모음화음 3개(æ, œ, y)에다 외래어 전사모음 4개(1, ɿ, y, ê)를 합쳐 짧은모음 15개, 긴모음 1개, 도합 26개이다.

대응하여 존재한다. 한국어 모음에는 긴모음체계가 없으므로 본문에서는 주로 몽골어 짧은모음과 대비하게 된다. 이런 모음들은 혀위치와 입술모양 및 발음방식상에서 대비할수 있다. 이제 혀의 높낮이를 위주로 하고 다른것들도 고려하면서 두모음 체계를 대비하여 보기로 한다.(도표 1.)

1. 1. 1. 높은모음

높은모음으로 한국어에 앞모음 ㅣ, ɨ, 가운데모음 ㅡ, 뒤모음 ㅓ 등 4개, 몽골어에 혀끝모음 1, ɿ, 앞모음 i, y, 뒤로기운모음 u 등 5개가 있다. 그중 한국어 ㅣ와 몽골어 i(음성)는 모두 앞, 평순, 음성음으로, 또 ɨ와 y는 모두 앞, 원순, 음성음으로 각각 한쌍의 같은 음이며 ㅓ와 u는 모두 뒤, 원

한몽어홀모음대조표 (도표 1)

혀 앞뒤 음양성 입술모양 혀 높낮이	끝	앞				가운데		뒤로기운	뒤		
		음성		양성		음성	양성	음성	음성	양성	양성
		평순	평순	원순	원순	평순	평순	원순	원순	평순	원순
높은모음	(1) ㅣ (ɿ) [i]	ɨ (y) [y]			ㅡ [ɨ]		u	ㅓ [u]			
반높은모음	에 [e]		ɪ	나 Y [ɸ]							ㅓ
중간모음					ㅓ ㅓ [ə] (ə)		o				ㅓ [0]
반낮은모음			ㅓ ㅓ [ɛ]	œ							ㅓ
낮은모음						ㅓ [a]				a	

\* 우도표 매칸 왼쪽것은 한국어모음, 오른쪽것은 몽골어모음, 괄호안의것은 몽골외래어 전사모음.

순, 음성음으로서 비슷하면서도 ㅏ는 뒤에서, u는 뒤로 기울어서 (가운데 가까이) 발음됨으로 해서 구별이 되고 한국어가운데모음 ㅡ와 몽골어혀끝모음 1, 1는 각각 대방에 대응되는 음이 없다.

### 1. 1. 2. 반높은모음

반높은 모음으로 한국어에 앞모음 ㅓ, ㅕ 등 2개, 몽골어에 앞모음 I(양성) Y, 뒤모음 ㅓ 등 3개가 있다. 그중 ㅓ와 Y는 앞, 원순, 양성음으로 매우 비슷하지만 Y는 양성음으로서 발음시 후두긴장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ㅓ와 구별된다. 그리고 한국어의 ㅓ, 몽골어의 I(양성), ㅓ는 상대방에 대응되는 음들이 없다.

### 1. 1. 3. 중간모음

중간모음으로 한국어에 가운데모음 ㅓ 뒤모음 ㅓ 등 2개, 몽골어에 가운데모음 ㅓ, ㅓ, 뒤로기운모음 0 등 3개가 있다. 그중 ㅓ와 ㅓ는 모두 가운데, 평운, 음성음으로 완전히 대응되는 음이다. 그리고 ㅓ와 0는 모두 뒤쪽, 원순음으로 비슷하지만 ㅓ는 양성음이고 0는 음성음이며 또 뒤에서, 0는 가운데 가까이에서 발음되므로 구별된다. 아울러 몽골어 외래어 전사모음 ㅓ이 조선어에 대응되는 음이 없다.

### 1. 1. 4. 반낮은모음

반낮은모음으로 조선어에 ㅓ 하나, 몽골어에 ㅓ, ㅓ, ㅓ 등 셋이 있다. ㅓ와 ㅓ는 모두 앞, 평순, 양성음으로 매우 비슷하지만 ㅓ(양성)는 ㅓ와 달리 발음시 후두긴장을 동반한다. 그리고 몽골어 ㅓ(뒤, 원순, 양성)는 한국어 중간모음 ㅓ(뒤, 원순, 양성)와 대응될수 있다. 몽골어 ㅓ는 조선어에 대응되는 음이 없다.

### 1. 1. 5. 낮은모음

낮은모음으로 한국어에 ㅓ, 몽골어에 a가 있는데 모두 낮은, 평순, 양성음으로서 서로 대응된다. 그러나 ㅓ는 가운데 a이고 몽골어 a는 뒤 a이며 또 발음시 후두긴장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한국어 a와 구별된다.

## 1. 2. 겹모음

한국어겹모음은 11개로서 상승적겹모음 10개 (ㅑ, ㅕ, ㅗ, ㅛ, ㅜ, ㅠ, ㅝ, ㅟ, ㅞ, ㅟ, ㅠ)와 평형적겹모음 1개로 이루어졌고 몽골어겹모음 11개인데 상승적 겹모음 4개 (a[ɑ:], əu[u:], ɪ[ɪ:], ɔa[ɔɑ:])와 하강적겹모음 7개 (ai[æ:], ai[e:], ɔI [ɔɛ:], ɔI [ɔɪ:], ɔI [ɔɪ:], ui[uɪ:], ɔai[ɔæ:])로 이루어졌다.

한문겹모음에는 모두 상승적겹모음이 있고 그중 ㅑ와 ㅟ(발음시 후두긴장을 동반함)가 대응된다. 반면에 몽골어에는 한국어에 없는 하강적겹모음이 있고 (일부는

한어음 전사에 쓰임) 한국어에는 몽골어에 없는 평형적접모음이 있다. 그리고 몽골어 접모음 11개는 입말에서 대부분이 긴(홀)모음화되고 일부가 겹모음으로 된다. (본절의 첫 단락에 표시된 경모음의 발음 부분을 참조하라) 한국어 접모음도 입말에서 홀모음화 되지만 극히 개별적현상(계급 [개급])에 불과하고 또 몽골어 접모음처럼 긴(홀)모음화 되지 않는다.

### 1. 3. 긴모음

몽골어에는 입말에서 짧은모음(보통모음)에 대응되는 긴모음 11개 (aa=a:, ɪɪ, ɔɔ, ɒ ɒ, ææ, œœ, œœ, œœ, əə, ɪɪ, oo, uu ※ 몽골어에서 긴모음은 모음을 겹쳐쓰거나 모음뒤에서 두점 (<:)>을 찍어표시한다.)가 있고 음운체계를 이루고 있다. 물론 한국어에도 긴소리가 단어식별에서 일정한 기능을 끌고는 있지만 음운체계를 이루지는 못한다. 즉 긴모음이 따로 없다.

### 1. 4. 모음조화

한몽어 모음은 모두 음, 양성으로 나누이고 그사이에는 조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한몽어모음의 공통적특성의 하나이다. 그러면서도 중세까지도 정연한 체계를 구비하고 있었으나 오늘에 와서는 잔존현상에 불과한 현대 한국어모음 조화와 엄정한 체계를 줄곧 보유하고 있는 몽골어모음조화 사이에는 조화의 성격, 내용, 정도 등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다시 토론키로 하고 여기서는 이만줄인다.)

한몽어음에 대해 상술한바를 모두어보면

1) 한몽어는 모두 혀위치와 입술모양을 모음분류의 주되는 기준으로 삼으면 모음을 음, 양성음으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모음의 음, 양성분류상 한국어는 혀의 높낮이를 주되는 기준으로 하나 몽골어는 혀의 높낮이와 함께 혀의 전후위치를 보며 특히 후두의 긴장도를 강조하며, 주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sup>3</sup>.

2) 모음들중 한몽어에서 같은음으로는 i(ɪ와 i(음성)), ə(ɨ와 ə), y(ɥ와 y)등 셋이고 그외것들은 서로 비슷하거나 ɳ, ɬ, ʃ와 Y, æ, ɒa는 각각 발음위치는 같으나 발음방식이 다르고 ɳ, ɳ, ɳ와 u, ɔ, a는 각각 서로 대응되면서도 발음위치와 발음방식이 좀씩다름) 완전히 다르다 (한국어의 ㅡ, ㅟ와 몽골어의 ɪ(양성), ɒ, o, œ, ɳ, ɳ, ɳ는 대방에 대응되는 음이 없다.) 겹모음의 경우 ɳ와 ɳa가 서로 대응되는 외것들은 대방에 대응되는 음들이 없다.

3) 몽골어모음은 글말과 입말의 구별, 긴모음과 짧은모음의 구별이 있으나 한국어에는 이런 구별이 없다.

<sup>3</sup> <모음조화법칙에 대하여> (칭겔타이 《중국언어학보》 제 1기, 1982), 《몽한사전》(1976)

4) 몽골어에는 자체의 고유모음이 있는 외 또 외래어전사모음이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고유모음뿐이다.

## 2. 자음

한국어자음은 19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ㅌ, ㅍ, ㅎ, ㅍ, ㅊ, ㅋ, ㆁ, ㅌ, ㅍ, ㅎ, ㅍ, ㅊ, ㅋ, ㆁ, ㅌ, ㅍ, ㅎ) 이고 몽골어자음은 26개 (n, b, p', x, ḡ, l, m, s, ʃ, d, t', tʃ', dʒ, j, r, w, ŋ 등 기본자음 17와 f, k', ɬ, dʒ, ts', z, dʒ, ts, s, 등 차용어 전사자음 9개) 가 있다. 이런 자음들을 발음 방식과 위치상에서 대비해 볼수 있다. 이제 발음방식을 위주로 하고 발음위치도 고려하면서 두자음체계를 대비하기로 한다. (도표 2)

### 2. 1. 파열음

파열음으로 한국어에 량순음 ㅂ, ㅍ, ㅃ 와 설단중음 ㄷ, ㅌ, ㄸ, 설근음 ㄱ, ㅋ, ㆁ 등 9개가 있고 몽골어에 양순음 b, p', 설단음 d, t', 설근음 ḡ, k' 등 6개가 있다.

여기서 한국어의 거센소리 ㅍ, ㅌ, ㆁ는 몽골어의 p', t', k'에 대응된다. 몽골어의 b, d, ḡ는 파열음 순환소리로서 한국어 ㅂ, ㄷ, ㄱ 와 비슷하면서도 그 기류가 ㅂ, ㄷ, ㄱ 보다는 약화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리고 한국어에는 ㅃ, ㅌ, ㆁ 등 된소리가 있지만 몽골어에는 이에 대응되는 자음이 없다.

### 2. 2. 파찰음

파찰음으로 한국어에 설단중음 ㅈ, ㅊ, ㅉ 등 3개가 있고 몽골어에 설면전음 dʒ, tʃ', 설단편설음(舌尖卷舌音) dʒ, tʃ' 등 8개가 있다.

파찰음에는 한몽어에 대응되는 음이 없다. 한국어의 ㅉ는 된소리로서 몽골어에 대응음이 없고 몽골어의 dʒ, tʃ'는 한국어에 대응음이 없으며 또 한국어의 ㅈ, ㅊ와 몽골어의 dʒ, tʃ'는 다 설단음으로 비슷한면이 있으면서도 ㅈ, ㅊ는 결구개설단음이고 dʒ, tʃ'는 이몸설단음으로서 구별된다.

### 2. 3. 마찰음

마찰음으로 한국어에 설단중음 ㅅ, ㅆ 후두음 ㅎ 등 3개가 있고 몽골어에 입술소리 w, 순치음 f, 설단전음 s, 설단편설음 ʃ, z, 설염음 ʃ, 설면음 j, 설근음 x 등 8개가 있다.

마찰음에도 한몽어에 대응되는 음이 없다. 한국어 ㅆ는 된소리로서 몽골어에 대응음이 없고 몽골어의 순치음 f, 편설음 ʃ, z, 입술소리(탁음) w, 설면음(탁음) j도 한국어에 대응음이 없으며 한국어 ㅅ는 몽골어 s, ʃ 와 비슷하면서도 구별된다 : ㅅ는 경구개설단음이나 몽골어의 s는 이몸설단음이며 ʃ는 설염치근음이다. 그리고 한국어의 ㅎ(h)는 후두음으로서 몽골어설근음 x와 구별된다.

## 2. 4. 비음

비음으로 한국어에 양순음 ㅁ, 설단중음 ㄴ, 설근음 ㅇ 등 3개가 있는데 몽골어에도 이에 대응되는 음 m, n, ŋ 등 3개가 있다.

## 2. 5. 튀김소리, 설측음, 떨림소리

튀김소리(섬음 : 閃音)로 한국어에 설단중음 ㄹ[r]이 있고 몽골어에는 없다.

설측음으로 몽골어에 l, ʎ가 있고 한국어에는 섬음의 변종으로서의 설측음 ㄹ[ɺ]이 있을뿐, 음운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떨림소리를 몽골어에 r가 있고 한국어에는 없다.

자음에 대해 상술한바를 모두어 보면

1) 한몽어자음들중 발음 방식과 위치상에서 대응되는 음으로 9쌍(한국어의 ㅂ, ㅍ, ㄷ, ㅌ, ㄱ, ㅋ, ㅁ, ㄴ, ㅇ과 몽골어의 b, p', d, t', ḡ, k', m, n, ŋ)이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파열음(6쌍)과 비음(3쌍)계열에 속한다. 그의 음들은 대방에 대응음이 없다. 발음방식 한국어의 된소리(ㅃ, ㅆ, ㅆ, ㅆ), 섬음(ㄷ)이 몽골어에 없고 몽골어의 마찰탁음(w, z, j), 설측음(l, ʎ), 떨림소리 r가 한국어에 없으며 발음위치상, 한국어의 경구개설단음(ㅈ, ㅉ, ㅊ, ㅅ, ㅆ, ㅌ), 후두음(ㅎ[h])이 몽골어에 없고 몽골어의 순치음(f), 이몸설단음(dz, ts', s), 치근뒤설단음(ᄑ, r), 설근음(x), 앞경구개설단음(권설음)(dʒ, tʂ, z), 설면음(j)이 한국어에 없다. 이렇게 한몽어자음 45개중에서 서로 대응되는 음이 18개이고 비대응음이 27개이며 이 27개중 한국어가 10개, 몽골어가 17개(그중9개가 외래어전사자음임)로서 한몽어자음의 차이가 비교적 크며 몽골어자음이 한국어자음보다 더 다양하다고 할수 있다.

2) 몽골어에는 기본자음(고유자음)17개가 있는외에 또 외래어전사자음 9개가 따로 있다. (주로 한어차용에 쓰이고있다.) 한국어에는 고유음표기의 자음 19개뿐이며 차용어전사자음이 따로 없는 반면에 (몽골어에는 없는) 한국어고유음으로 된 한자득음법이 있다.

3) 몽골어자음들중 받침자로 되는 9개는 경자음(b, ḡ, r, s, d)과 연자음(n, m, l, ŋ)으로 나누이고 일부 접사는 경, 연자음아래에 분별하여 (t', t'로 시작된 접사는 경자음받침아래, dz, d로 시작되는 접사는 연자음받침아래) 쓰인다. 한국어에는 경, 연자음의 구별이 없을뿐아니라 어근과 접사사이의 이런 자음조화현상도 없다.

4) 몽골어의 일부 자음은 모음조화법칙과 어울리는 다시 말하면 모음과 자음사이의 조화현상(이를테면 ḡ, x는 두가지 자형이 있어 음, 양성적단어에 분별하여 쓰인다)이 있으나 한국어에는 이런 현상이 없다.

한·몽어자음대조표 (도표 2)

자 발음 음 방식	발음 위 치	양순음	순치음	성 달 음					설열음	설면음	설근음	후 두 음	
		상	상	이	치	치	경	앞	치	앞	연		
		순	치	몸	근	근	구	경	근	경	구		
		하	하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순	순	단	단	단	단	단	연	면	중	부	근
파열음	순환소리	ㅂ b [p]		ㄷ d [t]							ㄱ g [k]		
	된소리	ㅃ [p']		ㄸ [t']							ㄲ [k']		
	거센소리	ㅍ p' [p']		ㅌ t' [t']							ㅋ (k') [k']		
파찰음	순환소리		(dʒ)			ㅈ (dʒ)		ᄑ					
	된소리					ㅉ [ts]							
	거센소리		(ts)			ㅊ (ts')		ㅆ					
마찰음	순환소리		(f)	s		ㅅ (s)		ㅈ		x	ㅎ [h]		
	된소리					ㅆ [s']							
	탁음	w					(z)	j					
비음	ㅁ m [m]		ㄴ n [n]						ㅇ ŋ [ŋ]				
설측음				ㄹ (ɻ)									
섬음						ㄷ [r]							
떨림소리						r							

※ 윗표 매칸 오른쪽것은 한국어자음, 왼쪽것은 몽골어자음, 괄호친것은 몽골 외래어전사 자음임.

5) 몽골어자음은 (모음역시) 어두, 어중, 어말에서 자형이 달라진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이런 자형의 위치적변화가 없다.

### 3. 어음변화

한국어와 몽골어의 어음변화는 매우 다양하다. 어음변화에는 동화, 첨가, 탈락등 공통적인것들이 있는반면에 한국어의 폐쇄음화, 절음, 몽골어의 글말의 구두어독법<sup>5</sup>등과 같이 판이한것들도 있다.

#### 3. 1. 공통적인것

##### 3. 1. 1. 동화

동화란 어음적단어안에서 한음이 앞뒤음의 영향을 받아 닮는 현상을 말하는데 한몽어에는 자음이나 모음에 다 있으며 또 형태부 사이에서 일어난다.

##### 1) 자음동화

한국에는 입말에 있다.

달나라 [달라라]

먹는다 [멧는다]

몽골어는 글말과 입말에 다 있다.

alan + xi - alax (글말에서) (혀끝비음 n이 설근음 x의 영향으로 설근비음 ŋ 로 되었다.)

ansix [ansix] (입말에서) (설근음 ŋ이 뒤에 온 설단음 d, r, ʃ, S의 영향하에 설단비음 n로 된다) 여기서 보다싶이 ①자음동화가 한국어에는 입말에만 있지만 몽골어에는 글말에도 있다. ②한국어의 경우에는 소음자음이 향음자음의 영향하에 소음자음계어의 향음자음으로 동화되거나 ㄴ와 ㄷ사이에서 동화되지만 몽골어의 경우는 향음자음이 소음자음의 영향하에 소음자음계열의 향음자음으로 동화된다. (물론 한국어에도 이런 동화 (안기다 [앙기다])가 있지만 비표준적인것으로 인정된다.

##### 2) 모음조화

한몽어의 모음조화에서 전형적인것으로 앞모음화(앞에있는 모음이 그뒤에 오는 모음 i의 영향하에 앞모음화됨)를 들수있다.

한국어에서는 입말에서 앞에 온 모음 ㅏ, ㅑ, ㅓ가 뒤에 온 ㅣ의 영향을

<sup>5</sup> 《몽한사전》(1976)의 부록 《몽골어간요문법》, 《몽골어가지(簡誌)》(1983)의 《어음》.



받아 앞모음 ʰ, ʷ, ɳ, ɠ로 된다.

잡히다 [재피다]

저리다 [재리다]

몽골어에서는 입말에서 앞에 있는 a, ə, ɔ, ɒ 가 뒤에 온 i의 영향하에 앞모음 æ, œ, ʏ, æ:, œ:, e: 로 된다

xarigo [xæro:]

xəbɪsɪxal [xœbsɪxɔl] (혁명)

한몽어앞모음화를 대조표로 보면 도표 3과 같다.

한몽어앞모음화대조표 (도표 3)

어별	입말의 앞모음화	글말의 대응형식	례	설 명
			입말 — 글말	
한 국 어	ɛ	a+i	애비—아버	두모음사이에 자 음이 끼움
	e	ə+i	에미—어미	
	ɸ	o+i	괴기—고기	
	y	u+i	취기다—죽이다	
어	ɛ	ai	새—사이	두모음이 직접 어울리고 음절수가 줄
	e	əi	개—거이	
	ɸ	oi	와—오이	
	y	ui	쉬—수이	
몽 골 어	æ	a+i	æm—amɪ (생명)	두모음사이에 자 음이 끼우고 음절수가 줄
	œ	ɔ+i	moer—mɔrɪ (馬)	
	ʏ	ɒ+i	ɔrɪx~Yrɪx—ɔrɪxɔ(요청)	
	æ:	ajɪ	sæ:xan—saɪxan(굽다)	겹모음이 긴홀모 음으로됨
	œ:	əjɪ ~ ɔɪ	noɪxœ:—hoɪxal(개)	
	e:	əjɪ ~ əi	xærəgte:—xærəgtəi(반드시)	

상술한바와같이 한몽어의 앞모음화는 모두 입말현상이며 그중 한국어의 ʰ, ɳ는 각각 몽골어의 æ, ʏ 와 매우 비슷하다. 반면에 아래와 같은 구별점도 있다. ① 두모음이 자음을 사이에 두었거나 또는 직접 결합되는 경우가 한몽어에 다 있는데 자음을 사이에 둔 경우 음절수가 한국어에서는 그대로나 몽골어에서는 줄어들며 직접 어울릴 경우 한국어에서는 줄어드나 (앞것이 비성절음화되면서) 몽골어에서는 줄지 않는다 (즉 겹모음이 긴홀모음화된다). ② 앞모음화를 한국어에서는 글말로 표시할수 있으나 몽골어에서는 글말로 표시할수 없다.

### 3. 1. 2. 첨가

어음들이 서로 이어질 때 원래 없던 음이 보태지는 현상이 한몽어에 다 있다.

## 1) 자음첨가

한국어에서는 주로 합성어근사이에 ㄴ, ㄹ가 첨가 된다.

밤일 [밤닐]

물약 [물랏]

몽골어에서는 ① 체언어간이 변격하거나 수식성분으로 되며 명물주체(名物主體)로 쓰일때 어간끝에 n가 첨가 된다.

xadw → xadwnto 성시+에 →성시에)(변격)

② 자음 η이나 긴모음으로 끝난 단어 바로 뒤에 긴모음으로 시작되는 접사가 올 때 단어뒤에 ḡ가 첨가된다.

bæ:sin → bæ:sinḡi:ŋoerœ (집 → 지붕)

## 2) 모음첨가

한·몽어에 모음첨가현상이 다 있는데 그 전형적인것으로 결합모음(일부 음절들의 결합상 자음중복기피(忌避)의 수요로부터 첨가하는 모음)을 들수 있다. 이런 모음을 한국어에서는 결합모음, 몽골어에서는 련접모음, 매개모음(媒介母音)이라 한다.

한국어의 결합모음으로는 一가 있다. 결합모음 一는 용언형태부사이에 오는데 받침소리(ㄹ제외)를 가진 형태부(어간, 토)가 첫소리 ㄴ, ㄹ, ㅁ를 가진 형태 또는 토 <시>를 만날 때 온다.

받(다) + 니(리, 며, 시) → 받으니 (리, 며, 시)

갈(다) + 니(리, 며, 시) → 가니 (가으니 X)

갈며 (갈으니 X)

가시 (가오시 X)

몽골어매질모음으로는 ㅅ가 있다. ㅅ는 자음 d, l, n, b, r, s로 끝난 동사어간에 자음 y, r, n, m, l, ḡ 또는 음절 si로 시작된 접사를 만날때 온다.

sar + na(la, ...) → sarḡna(sarḡla, ...공식 → 공백)

한몽어결합모음을 도표로 대조해보면 도표 4와 같다. (도표 4를 참조하라)

여기서 보다싶이 한몽어의 결합모음은 어음조건상에서 모두 ①용언어간말음과 접사사이에 오며 ②그중 용언어간끝소리 n(ㄴ), d(ㄷ), b(ㅂ)와 접사(n(ㄴ), l(ㄹ), m(ㅁ)로 시작되는 접사), 음절 si(시)사이에 오는 등 공통적인것의 반면에 ① 용언어간끝소리에서 조선어의 ㄱ, ㅋ, ㅇ과 몽골어의 l, r, s는 그 대방에 대응되는 음이 없으며 접사가운데서 몽골어에 있는 r, ḡ, j는 조선어에 대응음 없다.

한 · 몽 어 결합모음대조표 (도표 4)

어별첨가모음		어 음 조 건	
		용언어간끝소리	접사, 토
한국어	— (결합모음)	ㄴ ㄷ ㅂ ㄱ ㅁ ㅇ	ㄴ ㄹ ㅁ 시
몽골어	᠎ᠠ (매개모음)	n d b l r s	n l m si r ᠵ j

※몽골어의 매개모음 ᠎ᠠ는 그것이 첨가되는 단어에 따라  $\omega$ , o, u가운데 어느 하나로 교체될수도 있다.

### 3. 1. 3. 탈락

어음들이 연속하여 발음될 때 본래있던 음들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한몽어에 다 있으며 몽골어입말에서 더욱 뚜렷하다.

#### 1) 자음탈락

한국어고유합성어웃어근의 받침 ㄹ는 아래 형태부첫소리 ㄴ, ㄷ, ㅂ, ㄱ를 만날 때 탈락된다.

술 + 나무 — 소나무

몽골어정사(靜詞 : 체언과 형용사의 통칭)어간끝소리 n는 일부 접사 (동사조성의 접사, 복수의 접사 등)를 만날 때 탈락된다.

saɪn + dʒɪra — saɪdʒɪra(좋다 — 개선하다)

#### 2) 모음탈락

모음탈락현상도 조몽어에 다 있는데 특히 몽골어입말에서 뚜렷하다.

한국어에서는 용언어간말음 —, ㅏ, ㅑ가 뒤에 오는 ㅏ, ㅑ로 시작되는 토를 만나면 탈락된다.

크어 — 커

가아 — 가

몽골어에서는 입말에서 자음결합법칙에 의해 어말이나 어중의 짧은모음들이 탈락 (어말에서 어중으로 들이 탈락)된다<sup>4</sup>.

naras $\omega$  [ naras→ nars]

한몽어음변화중 비슷한것들로 이화, 련음 등을 더 들수 있다.

### 3. 2. 편이한것

한국어의 폐쇄음화, 절음, 거센소리화, 된소리화 같은것들이 몽골어에 없]

<sup>4</sup> 《몽한사전》(1976)의 부록 《몽골어간용문법》

고 몽골글말의 구두어두법(긴모음화, 자음결합법칙, 짧은모음들의 연변 : 演變)이 한국어에 없다. 특히 한국어의 폐쇄음화, 몽골어의 (모음의 약화와 탈락으로 인한) 겹자음화 같은것들은 두어음에 각각 고유한 특수현상들이다.

#### 4. 음절

한몽어음절은 구성상 비슷하며 특히 받침소리가 다양하고 비슷하다. 반면에 한음절안에서 자음연속을 한국어에서는 기피(忌避)하지만 몽골어에서는 허용하는 등 구별점도 있다.

##### 4. 1. 비슷한점

1) 음절의 구성상 한몽어에서 모두 모음은 성질의 필수적요소이며 자음은 성질의 수의적요소이다. 그래서 한몽어음음절은 모두 ①모음, ②모음 + 자음, ③자음 + 모음, ④자음 + 모음 + 자음 등 4가지 형식을 취하게 된다.

2) 음절끝에 오는 자음을 한국어에서는 받침, 몽골어에서는 받침 또는 반음(半音 : 받침발음이 외파와 폐쇄가 동반된다는뜻) 이라고 하는데 모두 다양하고 매우 비슷하여 그 받침소리로 한국어에 7개, 몽골어에 11개나 되며 그가운데 7개가 서로 대응된다. (도표 5 참조하라)

한 몽 어 받 침 대 조 표 (도 표 5)

받침소리	k(ḡ)	n	t(ḡ)	l	m	p(ḡ)	ŋ	r	s	i	u
한국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몽골어	ḡ	n	ḡ	l	m	ḡ	ŋ	r	s	i	u

이런 연고로 하여 한몽어에 폐음절이 많고 또 폐음절음들이 매우 비슷하다.

##### 4. 2. 부동한점

1) 한국어에서는 한음절안에서 자음연속을 기피하지만 몽골어에서는 허용(즉 《모음 + 자음 + 자음》을 허용)한다. 몽골어글말에서는 《rs》(ḡars—법, arslan—사자)와 같은 극히 개별적인 겹자음에 국한되지만 입말에서는 이런 겹자음이 48개나 된다.<sup>5</sup>

<sup>5</sup> 《몽한사전》(1976)의 부록 《몽골어간요문법》, 《몽골어간지(簡誌)》(1983)의 《어음》.

2) 한국어에서는 받침자와 받침소리가 같지 않아 받침자는 27개이나 받침소리는 7개뿐이다. 몽골어끝말에서는 받침자와 받침소리가 일치하여 각각 11개씩 (그중 9개가 반자음, 2개가 반모음)이다. 그런데 몽골어입말에서는 모든 자음과 겹자음 (48개)이다 받침소리 (외파음)로 된다.

3) 몽골어음절은 입말에서 첫음절이 짧고 두번째부터 (긴모음제외)흐러지며 특히 어말의 짧은모음이 탈락, 전이 (前移)되면서 겹자음이나 폐음절이 많아진다. (alta[alt̚], ᠠᠷᠠᠮᠠ[ᠠᠷᠠᠮᠠ]) 그러나 한국에는 이런 현상이 없다.

### 5. 악센트

한국어의 악센트는 대체로 자유로운 것으로서 긴소리, 높은소리, 센소리로 표현되는데 긴소리는 보통 첫음절에 오고 높은소리는 자유로우며 센소리는 자립적 단어의 첫음절에 온다.

몽골어단어악센트는 고정된것으로서 주로 소리세기로 표현되는바 첫음절에온다. 만약 악센트가 긴모음이나 겹모음에 올 경우는 센소리로 읽지 않고 보통 어조로 읽으며 소리높이는 뚜렷한 변화가 없다.

## ABSTRACT

### A Phonetic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Mongol

Oh-Sun Kwon

In this paper I will compare the phonetic systems of modern Korean and Mongol. There are 21 vowels in Korean and 37 in Mongol, among which 3 pairs are alike, while the rest different. Mongol has its written and spoken language, its long and short vowels. Korean, however, has no such differences. There are 19 consonants in Korean and 26 in Mongol, among which 9 pairs are alike and all are plosive and nasal sounds, whereas the rest different. Both Korean and Mongol have some phonemes of their own and both have various sound changes. Here I will also compare the difference of syllables and stresses between the two languages.